

관세전쟁·불황에도...기아, 4월 영국·중국서 '쾌속 질주'

스포티지, 영국 '최다 판매' 선정
현지 브랜드 순위 2위 달성 쾌거
중국서 2만 2,155대...11.8% ↑

기아가 미국의 글로벌 관세전쟁 선포 및 불경기를 받고 지난달 영국과 중국 등 신시장에서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12일 영국자동차공업협회(SMMT)에 따르면 기아 스포티지는 지난 4월 영국에서 3,514대 판매돼 현지 시장 베스트셀링카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올해 1월에도 스포티지는 현지 판매량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스포티지의 올해 누적(1~4월) 영국 판매량은 1만 6,380대로 포드의 푸마(1만 8,241)대에 이어 2위에 자리잡았다. 하반기 실적에 따라 '연간 베스트셀링카' 등극도 기대를 모은다.

이같은 선전으로 기아는 같은 달 영국 브랜드별 판매 순위에서 폭스바겐에 이어 2위(8,320대)에 올랐다. 기아 월간 판매량에서 스포티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 수준이다.

영국은 올해 1분기 66만 4,571대가 판매돼 점유율 17.0%를 차지하는 독일(19.6%) 다음으로 유럽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다.

롤스로이스, 재규어랜드로버 브랜드가 탄생하는 등 다양한 브랜드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에서 달성한 성과인 만큼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중국에서도 전기차를 앞세워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기아의 중국 합작법인인 위에다가이는 4월 2만 2,155대를 판매해 전년동월대비 11.8% 증가했다. 1~4월 누적 판매량은 7만 8,707대로 전

년비 12.7% 늘었다.

같은 기간 완성차 생산량은 2만 2,200대로 6.9% 증가했으며, 누적 생산량은 17.2% 늘어난 7만 7,900대다.

엔진 수출량은 1만 2,791대, 누적 기준으로는 4만 3,129대에 달한다.

위에다가이의 수출은 전기 중형 SUV 모델인 EV5를 비롯해 스포티지, 셀토스, K5, K2 등이 주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수출 국가는 85개국, 수출량과 수출액은 각각 41만 8,000대·43억 9,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엔진 수출도 40만대를 돌파했으며 수출액은 약 9억 6,000만 달러다. 주요 수출국은 한국, 러시아, 슬로바키아, 체코, 인도, 베트남 등이다.

기아는 내년까지 중국 시장에 전용 신차 3종을 선보일 계획이다. 전기 세단과 중대형 SUV 등 전동화 모델을 중심으로, 현지 수요에 맞춘 라인업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중국 내 생산 거점인 연청공장의 스마트화를 위해 총 1억 8,800만 위안을 투입, 자동화 설비와 지능형 공정을 도입한다.

출고 전 이종 검사와 품질 개선 태스크포스(TFT) 운영을 통해 글로벌 품질 기준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기아는 지난해까지 57곳의 신규 딜러망을 확보하는 등 판매 인프라 확장도 병행 중이다.

현대차와 함께 중국기술연구소, 중국 디지털 선형개발센터, 빅데이터센터, 상하이에 신설 예정인 UX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스마트 콕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등 맞춤형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홍승현 기자



현대차 아이오닉 9이 '2025 탑기어 전기차 어워즈'에서 '최고의 7인승 전기차'에 선정됐다.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차그룹 '탑기어 전기차 어워즈' 8차례 수상

아이오닉9, 최고의 7인승 EV3, 최고의 크로스오버

현대자동차그룹은 탑기어(TopGear)가 주관하는 '2025 탑기어 전기차 어워즈'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9과 기아 EV3가 각각 '최고의 7인승 전기차'·'최고의 크로스오버 전기차'에 선정됐다. 12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현대차그룹은 2020년부터 진행된 탑기어 전기차 어워즈에서 모두 8차례 수

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유럽 지역은 물론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세계 정상급의 상품성과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탑기어 매거진은 1993년 창간한 영국 4대 자동차 전문지로 일반 소비자 대상 신차 및 경쟁 모델 비교 평가, 시승기, 차량 구매 정보 등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글로벌 소비자들의 구매에 큰 영향을 끼친다.

아이오닉 9은 현대차의 첫 전동화 플래그십 SUV다.

탑기어 편집장 잭 리키는 "아이오닉 9은 최고

의 기술력을 갖춘 차량"이라고 극찬하며 "현대차가 또 한번 디자인 감각과 유용한 아이디어를 잘 결합해냈다"고 강조했다.

EV3는 전기차의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기아가 야심차게 선보인 전용 전기차다.

탑기어 수석 시승 에디터 올리 큐는 "EV3는 중형차 같은 여유로운 주행감, 뛰어난 정속성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은 총 6년 동안 진행된 탑기어 전기차 어워즈 중 8회의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

홍승현 기자

기아, 니로 HEV 모델 '베스트 셀렉션' 트림 출시

기아가 대표 친환경 SUV 니로 하이브리드의 신형 트림인 '베스트 셀렉션'을 출시했다.

12일 기아에 따르면 The 2025 니로에 새로 추가된 '베스트 셀렉션' 트림은 프레스티지 트림을 기반으로 다양한 안전 사양과 고급스러운 디자인 요소가 기본 적용됐다. 더욱 편리하면서도 세련된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 기능은 △전방 충돌방지 보조(교차로 대향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정차 및 재출발 가능 포함)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전진출차)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안전 차차 보

조 △전자식 차일드락 등이다.

선택 사양인 내비게이션 적용 시에는 내비게이션으로부터 고속도로, 안전구간, 곡선로 등의 정보를 받아 해당 구간 통과 시 자동으로 차량의 속도를 조절해 안전한 주행을 돕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지원된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어 한층 편안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프론트/리어 LED 턴시그널 등이 기본 적용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한다.

홍승현 기자

자동차 부품 1차 협력사 영업이익 12%↓...관세 여파에 '빨간불'

업체 작을수록 수익성 악화 심화

지난해 자동차부품 1차 협력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 둔화와 내수 침체에 따른 결과로 올해는 미국 관세 부담이 가중돼 수익성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된 자동차부품 1차 협력사 83곳(현대모비스·현대위아 제외)의 영업이익은 3조 4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81조 2,249억원

으로 지난 2023년 대비 3.7% 증가했다.

작년 한 해 부진했던 완성차 업체가 공급망을 타고 부품업체에 충격파를 몰고 온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완성차 업체 5개 사(현대차·기아·한국GM·르노코리아·KG모빌리티)의 글로벌 판매량은 지난해 794만 7,170대로 전년보다 0.6% 감소했다. 특히 내수 판매량은 6.4% 줄어든 135만 8,842대에 그치며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114만 5,000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작으면 판매량, 매출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 정도가 더 크다"면서

"2, 3차 협력사로 내려가면 금융권 대출이 타이트해지며 현금 흐름에도 문제가 생기는 등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까지 겹치며 부품업체 전망이 더 어두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달 3일부터 자동차 부품으로 25% 관세 조치를 확대했다.

향후 2년간 부품 관세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하긴 했지만, 대미 수출 비중이 큰 한국 부품업체들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승현 기자

중흥그룹

www.s-class.co.kr



더 특별하게 설계합니다
더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다
클래스, 그 이상을 넘어

Beyond the CLASS
중흥S-클래스